

주일학교 캠프

돌아오는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강화에서 주일학교가 2박 3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일학교 캠프는 전국 원근 각처에 있는 작은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입니다.

작은 교회에 있는 한 두 명 있는 아이들을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여름캠프를 찾았지만 주일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캠프가 없던 차에 강화에서 진행되는 이 캠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멀리서는 대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번 캠프를 저희 바울교회 친구들은 지난 6월부터 준비했습니다. 앞에서 울동팀으로 섬기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김포까지 가서 예배를 배우고, 울동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데려다 주지 못할 때는 자기들 스스로 1시간 가량 버스를 타고 김포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연습에 참가한 바울교회 아이들이 모두 울동팀으로 섬기는 일을 즐거워했고, 다른 아이들 앞에서 울동을 이끄는 일을 긴장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특히 감사한 부분은 이번에 울동팀으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동적으로 울동팀의 울동을 따라했다면, 이제는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이니만큼 아이들의 자세나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자신들이 울동인도자로서 아이들의 예배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렇게까지 깊이 인식하지는 못한 것 같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한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수동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서는 신앙이 자랄 수 없고, **주도적으로 예배를 인도할 때** 신앙이 자라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속담에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과 같이 남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다보니,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는 너무나 감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일학교 사역을 놓고 기도해주십시오. 우리 바울교회 친구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좋은 기독교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수련회와 같은 장소는 어렸을 적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장소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련회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그런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또 설교자들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심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전국 각처에서 작은 교회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이니만큼 그 작은 교회들에게도 이번 수련회가 정말 중요한 시간일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60여명의 아이들 모두가 안전하고 유익하고 뜻깊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6.8.9 여러분의 가족 이목사

주일오전예배 말씀요약

오늘 말씀의 리브가가 생각하기에는 예서는 장자로 세워져서는 안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지도자가 되기에 턱없이 역량이 부족한 인물이었습니다. 장자권을 팔죽한 그릇에 팔았던 인물이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문제는 자신의 남편 이삭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첫째 아들 예서를 기어코 집안의 리더로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까?! 이 안타까운 상황을 리브가는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시 문화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수도 없는 장자축복기도를 가로채는 사기극을 꾸미기에 이릅니다. 이런 리브가의 모습과 같이 우리 역시도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유로 억지로라도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역모임

1. 부모가 보기에 자녀가 결혼할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결혼했다가는 고생할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철없는 자녀는 끝까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 아들이 퇴근한 후에도, 집에 있는 며느리가 식사를 차리기는커녕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때운다든지, 아들이 소중히 벌어들인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 여러 차례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전혀 고칠 생각이 없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아들이 크게 힘들어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